

SPORTS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조상우 “투수진 강해... 간절했던 우승 이룰 것”



첫 실전 1이닝 2피안타 무실점...최고 구속 144km

“보직 신경 쓰지 않아...이닝 확실히 막는 데 집중”

“우승 경험이 없던 만큼 더욱 간절합니다. 이닝을 확실하게 막아내겠습니다.”

올 시즌 KIA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출발에 나선 조상우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KBO리그 최정상급 볼펜 투수였던 조상우는 지난해 쉽지 않은 시즌을 보냈다. 2021시즌 종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한 그는 2024시즌 1군 무대에 복귀했다. 하지만 생각처럼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시속 150km 이상을 공을 뿌렸던 때와는 다르게 구속이 많이 줄었다. 이후 조금씩 적응해 가려던 차에 어깨 부상도 걱정을 접었다. 결국 그는 44경기 1피안타 6이닝 9구

드 평균자책점 3.18의 성적표로 조기에 시즌을 마감했다.

그런 그에게 손을 내민 건 KIA였다. KIA는 키움히어로즈에게 현금 10억원, 2026년 신인 1라운드·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조상우를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실시했다. 지난해 통합우승을 이끌었던 장현식의 빈자리를 채워줄 인재를 필요로 했다. 조상우는 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스프링캠프 탐금질에 열을 올렸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치른 첫 실전에서 좋은 출발을 알렸다.

지난달 25일 한화이글스를 상대로 2025시즌 첫 실전을 치렀고, 1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며 비공식 데뷔전을 훌륭하게 마쳤다. 이날 조상우는 패스트볼, 슬라이더, 포크볼 등 17개의 공을 뿌렸다. 최고 구속은 144km였다.

조상우는 “KIA 이적 후 첫 등판이었기도 하고 오랜만의 실전이었다. 감을 잡을 수 있게 열심히 준비했다”며 “다른 팀을 상대하는 게 어색하지는

않다. 스프링캠프에서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던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바라본 자신의 현재 회복 상태는 순조롭다. 개막전에 맞춰서 정상 컨디션을 맞출 수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조상우는 “144km가 나온 걸 보면 페이스가 잘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막전에 가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좋아질 것 같다. 다만 지난해에도 스피드를 억지로 올리려다가 몸이 안 좋아졌던 만큼, 차근차근 올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통합우승을 이뤄낸 KIA는 올해 역시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1강’이라는 말이 꾸준히 나온다. 특히 마운드에서는 제임스 네일을 필두로 아담 윌러, 양현종, 윤영철까지 1~4선발이 탄탄하다. 여기에 황동하와 김도현이 5선발 경쟁을 펼치고 있고, 6월에는 부상으로 이탈했던 이의리가 복귀할 예정이다. 불펜진 또한 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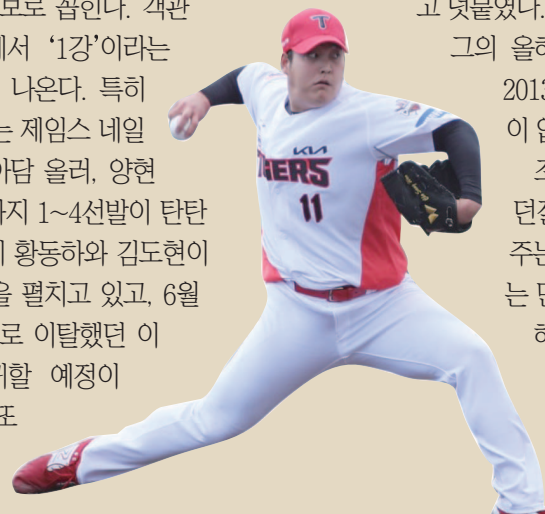
현, 광도규, 최지민, 정해영 등이 건재한데다 조상우까지 합류했다. 변수가 없다면 리그 최정상급 마운드라는 평가다.

조상우는 이에 “KIA 투수진이 확실히 세다. 저도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엔트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한다. 좋은 투수들이 많아 확실히 강한 팀이라고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보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쨌든 중간투수이고 짧은 이닝을 던지는데 그때 확실히 막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올해 목표는 당연히 팀의 우승이다. 2013년 프로 생활 시작 이후 우승 경험이 없는 그는 트로피가 더욱 간절하다. 조상우는 “(정)해영이가 마음 편히 던질 수 있게끔 최대한 깔끔하게 보내주는 게 목표”라면서 “우승 경험이 없는 만큼 간절한 마음이다. 더욱이 지난해 우승했던 팀이니 저 때문에 (우승) 못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아사니 멀티골’ 광주FC, 시즌 첫 승 달성

흥경기서 FC안양에 2-1 역전승
3경기 연속 무패...1승 2무 승점 5



프로축구 광주FC가 안방에서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광주FC는 지난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라운드 FC안양과의 홈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앞서 수원(0-0), 전북(2-2)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광주는 이날 승리로 3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갔다. 그 결과 1승 2무 승점 5로 리그 4위에 안착했다.

이날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헤이스와 박인혁이 최전방에 이름을 올렸다. 중원은 문민서, 이강현, 신창무, 아사니를 배치했고 후방은 이민기, 안영규, 변준수, 김진호가 맡았다. 골키퍼 장갑은 김경민이 꼴다.

전반전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전반 4분 상대 채현우가 때린 슈팅을 안영규가 막아냈다. 이어 상대 에두아르도의 슈팅 역시 높이 땀다. 5분 뒤에는 헤이스가 회심의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선제골은 안양이 가져갔다. 전반 15분 상대 이태희가 페널티박스 우측에서 올린 크로스를 모따가 쇄도하며 헤더로 연결시켰고, 그대로 골망을 갈랐다.

광주는 전반 28분 변준수가 동점골을 노렸으나 상대 골키퍼가 안았다. 박인혁은 2분 뒤 아사니의 크로스를 받아 헤더를 날렸으나 빔나갔다.



지난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라운드 FC안양과의 홈 경기에서 광주FC 아사니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모습.

결국 전반전은 0-1로 끝이 났다.

후반전은 광주의 우세였다.

광주는 시작과 동시에 안영규, 신창무, 문민서 대신 민상기, 오후성, 박태준을 투입하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후반 11분 오후성이 페널티박스 좌측에서 올린 크로스를 아사니가 왼발로 때리면서 동점골

을 터트렸다.

이후 공방전을 펼치던 양 팀은 후반 43분에 운명이 갈렸다. 오후성이 넘겨준 공을 받은 아사니는 드리블 이후 감아치면서 역전 극장골을 기록,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결국 경기는 2-1로 마무리됐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국대 출신 미드필더 주세종 영입

“팬이 원하는 모습 경기장서 보여 드릴 것”

프로축구 광주FC가 국가대표 출신 선수를 영입하며 전력 보강에 방점을 찍었다.

3일 광주FC에 따르면 최근 감바 오사카, 대전 하나시티즌 등에서 활약한 바 있는 미드필더 주세종(34)을 영입했다.

능곡고-건국대 출신인 주세종은 국가대표 출신으로 팬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선수다. 2015년 대한민국 A대표팀 데뷔에 성공해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랍에미리트 아시아컵 등 다양한 국제 대회를 누볐다. 특히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손흥민의 득점에 통패스로 도움을 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소속팀 커리어도 화려하다. 주세종은 2012년 부산 아이파크에서 프로 데뷔 후 일찍이 폭넓은 활동량, 뛰어난 패싱력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FC서울, 아산 무궁화, 대전하나시티즌 등을 두루 거치며 K리그1·K리그2를 섭렵했다. 2021년에는 감바 오사카 소속으로 J리그 경험까지 쌓았다.

주세종은 K리그에서만 통산 260경기에 출전해 16골 30도움을 올렸고, J리그에서도 27경기에서 2도움을 기록했다. 탄탄한 기본기,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중원 조율에 능하며 예리한 킥 능력을 갖춰 세트피스 등 전술 활용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 시즌 광주는 중원에 기존 박태준에 더불어



영입생 유제호, 신인강희수 등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리그·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를 병행하는 바쁜 일정 속 실력, 리더십이 검증된 자원 주세종의 가세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을, 이정도 감독에게 버팀목이 돼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세종은 “상대 팀으로 만났던 광주는 정말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이었고, 광주가 어떤 색깔과 철학을 가졌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며 “감독님, 선수들과 함께 광주가 인정받는 팀이 되기 위해 큰 힘이 되고 싶다. 팬들이 원하는 모습을 경기장에서 보여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연패 탈출’ KIA, 연습경기서 kt 6-2 제압

이우성 솔로포·윤도현 투런포 폭발

KIA타이거즈가 일본 오키나와 2차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첫 승을 따냈다.

KIA는 3일 일본 오키나와 기 구장 열린 kt위즈와의 연습경기에서 6-2로 승리했다. 이로써 KIA는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4연패를 끊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날 KIA는 박찬호(유격수)-최원준(중견수)-김도영(3루수)-최형우(지명타자)-위즈덤(1루수)-이우성(좌익수)-윤도현(2루수)-김태군(포수)-박정우(우익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상대는 강백호(포수)-로하스(우익수)-허경민(3루수)-문상철(지명타자)-김민혁(좌익수)-오재일(1루수)-배정대(중견수)-오윤석(2루수)-김상수(유격수) 순으로 타선을 구성했다.

KIA의 선발투수는 양현종이었다. 총 49개의 공을 던진 그는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을 구사했다.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42km였다.

선취점은 kt의 차지였다. 2회초 1사 1·3루 상황

상대 오윤석이 좌측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올렸다.

KIA는 2회말 곧바로 추격에 나섰다. 1사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우성은 상대 투수 143km 패스트볼을 그대로 견어 올려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폭발시켰다. 이어 3회말 선두타자 박찬호가 안타를 때려내면서 3루까지 진출했다. 이어 최원준이 우전 적시타를 기록하면서 2-1로 역전에 성공했다.

4회말에는 위즈덤이 2루타를 만들었다. 이우성 삼진 이후에는 윤도현이 상대 129km 빠른공을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찬스는 계속됐다. 김태군의 2루타 이후 박정우가 안타를 생산했다. 후속타자 박찬호는 유격수 앞 땅볼을 기록했고, 그 사이 3루 주자가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경기는 5-1이 됐다.

KIA는 5회말 또다시 점수를 추가했다. 1사 상황 타석에 들어선 최형우가 좌전 안타로 출루했다. 위즈덤 볼넷 이후 이우성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터트렸고, 6-1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후 9회초 상대는 희생타로 한 점을 추가했지만, 경기는 6-2 KIA 승리로 끝이 났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이정후, 이틀 연속 멀티히트 ‘타격감 최고’

MLB 시범경기 타율 0.400...김혜성, 대주자 출전 1타수 무안타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가 이틀 연속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행진을 펼쳐 최고 타격감을 뽐냈다.

이정후는 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크트데일의 스크트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홈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를 치고 득점 2개를 곁들였다.

이날 경기로 이정후의 시범경기 타율은 0.400(15타수 6안타)으로 올라갔다.

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에서 이번 시범경기 첫 2안타 경기를 펼쳤던 이정후는 이틀 연속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다.

이정후는 첫 타석부터 강한 타구로 내야를 뚫었다. 1회 1사 1루에서 타석에 선 이정후는 에인절스 선발 호세 소리아노를 상대로 1루수와 2루수 사이를 지나가는 총알 같은 타구를 만들었다.

후속타자 맷 케프먼의 단타로 3루까지 간 이정후는 헤라르 엔카르나시온의 2루타 때 홈을 밟았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이정후는 똑같은 코스로 타구를 보내 출루에 성공했다.

바런 투수 호세 페르민을 상대한 이정후는 강한 타구로 우전 안타를 때려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체프먼의 볼넷으로 2루까지 간 이정후는 2사 후 타진 엔카르나시온의 안타 때 홈을 밟아 6-0으로 달아나는 득점을 책임졌다.



이정후는 6회초 시작과 동시에 세리호알칸타라와 교체돼 경기를 마쳤다. 샌프란시스코는 에인절스에 9-5로 승리해 시범경기 5승(3패)째를 거뒀다.

전날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시범경기 첫 홈런을 터트렸던 김혜성(다저스)은 상상을 이어가지 못했다.

김혜성은 이날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캐탈뱅크 치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시범경기에서 6회말 대주자로 투입됐다. 2사 1, 2루에서 미겔 로하스가 볼넷을 골라내자 1루 대주자로 들어간 김혜성은 그대로 6번 타자 유격수 자리에서 뛰었다.

김혜성은 팀이 6-1로 앞선 7회말 2사 2루에서 타석을 맞이했으나 페이턴 팔레트의 체인지업에 속아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김혜성은 추가 타석 없이 경기를 마쳤고, 다저스는 6-3으로 승리했다.

김혜성의 시범경기 타율은 0.118(17타수 2안타)로 조금 내려갔다. 연합뉴스